



노망(老妄)은 나이 아닌 疾病서 온다

사람이 老齡에 접어든다고 해서 정신적 기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며 老妄은 질병에 기인한다는 한 여성 의학자의 필생의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美國 캘리포니아대학 정신병학교수인 리시 자비크교수는 40여년에 걸친 연구 끝에 최근 이같은 결론을 내리고 생활방식을 개선하면 노망을 방지하고 장수를 누리는데 도움이 된다는 처방을 제시했다.

1백34쌍의 쌍둥이 노인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실시한 지능검사를 토대로 한 자비크교수의 연구결과는 어째서 어떤 노인들을 망령이 들고 어떤 노인들은 임종시까지 명석한 두뇌를 발휘하는가에 하나의 해답을 던져주고 있다.

소아과학 및 노인병학자이기도 한 자비크여사는 『노령기에 정신적 쇠퇴가 필연적으로 일어난다고는 생각지 않는다』면서 『노망을 막는 방법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으나 적절한 영양섭취와 운동에 술-담배-마약을 삼가고 공해를 피하는등 생활방식을 건전하게 유지하면 노망을 방지 또는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자비크교수는 연구결과 또 사람들이 생활방식을 개선하면 언젠가는 1백20세나 심지어는 1백50세까지 장수할 수도 있으며 지능검사를 이용하면 노망에 직면하여 치료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을 확인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했다.

의학용어로 치매라고 하는 노망은 명료하게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을 바르게 표현하고 복잡한 지적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정신능력을 상실하는 것을 말한다.

자비크교수는 쌍둥이가 서로 지적 차이를 보이는 것은 어떤 환경적 요인에 의한 것인가를 알아내기 위해 지난 46년부터 50대와 60대의 쌍둥이 노인 1백34쌍을 대상으로 연구를 계속해왔다.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적으로 동일하고 이란성 쌍둥이는 유전형질을 공유하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쌍둥이 상호간의 차이가 환경의 차이에서 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쌍둥이들은 5년마다 주기적으로 지능검사를 실시한 결과 평균 연령이 64세에서 73세로 늘었을 때 속도와 관련된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지능검사에서 오히려 더 높은 점수를 얻었으며 80대에 이르러서야 점수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각쌍의 쌍둥이 가운데 특정한 지능검사에서 먼저 점수가 떨어진 쪽이 먼저 죽는다는 것과 초기 검사에서 점수가 낮았던 사람들이 20년후 노망이 들 가능성이 고득점자 보다 4배 가량 높다는 두가지 중요한 사실이 발견됐다.

지비크교수는 이같은 발견을 토대로 노망의 원인이 나이가 아닌 질병에 있다

는 결론을 내리면서 『뇌를 직접 공격하는 알츠하이머병 같은 질환이나 체내의 다른 곳에서 발생하더라도 뇌의 혈액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그밖의 질병도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지능검사에서 점수가 떨어지면 알츠하이머병에 의한 직접적인 뇌의 손상이나 다른 질병에 의한 간접적인 뇌손

상이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자비크교수는 『노인들에게 3-5년마다 지능검사를 실시하면 치매증을 보이기 쉬운 노인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지능검사가 노망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

임신중에 발병한 고혈압, 아스피린 소량 복용 효과 커

임상실험에 따르면 고혈압으로 고생하는 33명의 임신부를 무작위로 선발하여 이중 17명에게 60mg의 아스피린을, 나머지 16명에게 placebo를 임신 12개월부터 출산때까지 각각 매일 복용시킨 결과 아스피린을 복용한 임신부들은 아무런 문제도 일어나지 않았으나 placebo를 복용한 임신부중 3명이 고혈압 증세를 보였다는 것이다. 또 저용량의 아스피린을 복용한 임신부들의 경우 임신기간이 대체로 길었고 이들의 아기가 보다 체중이 더 나갔으며 신생아 출혈도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편 이스라엘에서 실시한 또 다른 임상실험에 따르면 임신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혈압으로 고생하는 임신부 65명을 2중맹검법으로 34명은 임신 6개월이후 매일 아스피린 100mg을 복용토록 하고 적은양의 아스피린을 지속적으로 복용할 경우 임신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혈압으로 고생하는 임신부에게 매우 유익한 것으로 연구결과 밝혀졌다.

이것은 체내의 트롬복산과 프로스타사이클린의 수준을 조절하는 작용을 아스피린이 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데, 이와같은 연구결과는 지난달 중순 英國의 유명한 의학잡지인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에 발표된 바 있다.

이탈리아에서 실시한 나머지 31명은 placebo를 복용토록하였는데 placebo를 복용한 임신부 중 11명(35.5%)이 고혈압 증세를 보였던 반면 아스피린을 복용한 임신부는 4명(11.8%)만이 고혈압 증세를 보였다는 것이다.

임신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혈압이 여러가지 원인에 의해 발생되기 때문에 이것이 프로스타글라딘 대사의 억제로 인해서만 발생한다고 하기 어렵지만 축적된 자료에 근거하여 판단해 볼 때 고혈압을 예방하기 위해 소량의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것은 권장할 만한 일로 평가되고 있다.